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 목사

김원재, 양명철

## 주일예배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믿음과 삶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사도행전 6:1-7

“오 신실하신 주”

“믿는 자들의 해법”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 341)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주일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10시 30분에 모입니다. (문의- 정주애 전도사)
3. 큐티책 9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지경)
4. 8/30(주일)부터 - 9/2(수)까지 자녀들을 위한 (비대면)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진행을 위한 물품이 준비되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준비된 물품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아동부 주일예배는 VBS영상으로만 진행됩니다.** (문의-차유미 전도사)
5. 9/2(수)부터 6주간 수요일 저녁 8시에 직분자 훈련이 있습니다. 10월에 임직식을 할 장로,집사,권사 피택자들과 현재 직분자들은 모두 참석하기 바랍니다.
6. 9/3(목) 저녁 6시30분 부터 9시 30분 까지 새학기를 위한 Youth Group One day Retreat이 있습니다.
7.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 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원 제한이 있어서 연락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도 우리 예배당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있는 인스펙션도 잘 통과하고 있고, 건물 외부 벽과 지붕 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집과 연한 담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대예배실 강단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직 내부 공사는 한참 진행되어야 하지만, 일정에 따른 공사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모범방역국가로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 대외로 알려져 있었는데, 8월 13일부터 하루 감염자 100명을 넘어서더니, 요 며칠새는 계속 3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재확산의 진원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현장예배와 영상예배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이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고 예배와 모임을 가지며 성도들의 상당수가 감염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을 떠나서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무렵 예배당에서 10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되던 그때 우리는 현장에 1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상과 함께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로마의 탄압 아래에서도 카타콤(지하 무덤)에서 예배는 계속 되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와도 동굴 속에서, 절벽 위에서 예배는 계속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쉬지 않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자유가 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9,582